



신강위글자지구 창립 70주년 경축대회 성대히 거행

중공중앙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협 중앙군위 전보를 보내 축하

습근평 대회 참석

왕호녕 참석 및 연설 채기 참석



▲ 9월 25일 오전, 신강위글자지구 창립 70주년 경축대회가 신강 인민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이 경축대회에 참석했다. / 신화사 기자 연안

▲ 9월 25일 오전, 신강위글자지구 창립 70주년 경축대회가 신강 인민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이 경축대회에 참석했다. 왕호녕과 채기가 대회에 참석했다. / 신화사 기자 사환치

[우룸치 9월 25일발 신화통신] 분발 향상하기를 70년, 천산남북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5일 오전, 신강위글자지구 창립 70주년 경축대회가 신강 인민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이 경축대회에 참석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이며 중앙대표단 단장인 왕호녕이 대회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 대에 참석했다. 등빛이 찬란한 신강 인민회당은 분위기가 성대하고 열렬했다. 주석대 오른쪽에는 '신강위글자지구 창립 70주년 경축대회' 현수막이 걸려있고 배경막의 한복판에는 빛나는 중화인민공

화국 국장이 걸려있었으며 국장 량견에는 각기 5폭의 붉은기가 받치고 있었다. 회당 뒤편에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단결조화, 번영부유, 문명진보, 안거락업, 생태가 좋은 사회주의 현대화 신강을 건설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는 표어가 걸려있었다. 오전 10시 30분경, 흥겨운 악곡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습근평 등 지도자 동지들이 주석대에 오르자 장내에는 오래동안 열렬한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강위글자지구당위 부서기이며 자치구인민정부 주석인 예르겐·투니아즈가 대회 시작을 선포했다. 전원이 기립하여 국가를 높이 제창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통

전부 부장이며 중앙대표단 부단장인 리간걸이 신강위글자지구 창립 70주년 경축에 관한 중공중앙,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협, 중앙군위의 축전을 대독했다. 왕호녕이 연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70년전, 당중앙의 친절한 배려와 당의 민족정책의 빛바래 아래 신강위글자지구는 창립을 선포했다. 70년간 특히 새시대이래 당의 령도하에 신강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공동으로 주인이 되어 사회주의 혁명, 건설과 개혁개방의 위대한 승리를 끊임없이 거두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략적으로 신강사업을 자세히 관찰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새시대 당의 신강치리 전략을 확립하고 신강의 제반 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했다. 신강은 전국과 함께 빈곤되지 난관공략전에서 승리하고 조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했다. 신강 여러 민족 대단결은 부단히 공고해지고 심화되었으며 중화민족공동체식은 인심에 깊이 뿌리내리고 여러 민족 인민들은 석류씨처럼 단단히 뭉쳐 중국식 현대화의 길에서 씩씩하게 활보하고 있다. 왕호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강위글자지구가 70년 동안 이룩한 위대한 성과는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제도의 뚜렷한 우세를 충분히 보여주고 중국특색 민족문제 해결의 정확한 길이 강대한 생명력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새시대 당의 신강치리 전략은 완전히 정확한 것임을 충분히 증명했다.

왕호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강의 현대화 건설은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달하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새시대 당의 신강치리 전략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신강사업의 총목표를 단단히 틀어쥐고 중화민족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주선을 확실하게 파악하며 법에 의해 신강을 다스리고 단결로 신강을 안정시키며 문화로 신강을 침윤

하고 인민을 부유해지게 하며 신강을 진흥시키고 장기적으로 신강을 건설하는 것을 시종 견지하면서 단결조화, 번영부유, 문명진보, 안거락업, 생태가 좋은 사회주의 현대화 신강을 건설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 신강위글자지구당위 서기 진소강, 신강생산건설병탄 정위 하충우, 위글족 군중 대표 예미라구리·아부두, 한족 군중 대표 곽상봉이 대회에서 발언했다. 하립봉, 왕소홍, 쉐카라이트·자커얼, 심이금, 왕동봉, 류진립, 신강에서 사업한 적 있는 로동자 및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 동지, 중앙대표단 전체 성원, 신강위글자지구 당정군 책임자 동지 등이 대회에 참석했다.

2025 중국세계유산관광홍보련맹대회 집안서

우리 나라 변강 력사의 긍정적인 홍보·교육 강화에 중요한 의미

9월 25일, '2025 중국세계유산관광홍보련맹(집안) 대회 및 고구려 세계문화유산 보호·전승 교류 행사'가 집안시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유산 산 고구려·천년 집안의 기억'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문화유산 보호 분야의 전문가, 학자, 정부 대표 및 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고구려 세계문화유산의 보호·전승과 혁신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개막식에서는 중국 세계유산지역 간 관광 코스와 '화하 아름다운 풍경, 세계유산 여행(华夏好风光, 世界遗产游)' 안내서가 발표되었으며 새 성원 련맹 가입식이 진행되었다.

이러 집안시, 북경중축선(北京中轴线), 파단길림사막(巴丹吉林沙漠), 서하릉(西夏陵) 등 세계유산지역 대표들이 차례로 해당 관광 코스를 소개했다. 중앙민족대학 몽만교수는 고구려 세계문화유산이 세계 문명 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독창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벽화예술, 도성건축기술, 릉묘 보호 등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강조했다. 전문가 대화 질차에서는 북경연합대학, 북경제2외국어학원,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길림대학에서 온 학자들이 고구려 세계문화유산 보호 기술 및 리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심층적인 논의를 했다. 행사 기간 참석자들은 집안시박물관, 장수왕릉, 호태왕비, 환도산성 등 문화유산 현장을 방문했으며 집안시의 국가급 야간문화및관광소비집

약구를 탐방하는 등 고구려 역사·문화의 심층적 내포와 현대적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세계유산관광홍보련맹의 연간 주요 행사중 하나로 처음으로 동북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집안시는 고구려 세계문화유산의 중요한 보호지와 전승지로서 중화문명의 다원적 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개최는 중국 세계문화유산 보호와 관광산업의 심층적인 융합 발전을 위한 새 시나리오와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고구려 세계문화유산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제고하고 고구려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와 해석 및 보호와 전승을 촉진하며 우리 나라 변강 력사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김명준기자



2025 장백산(화룡) 상황산업대회 개막

25일, 2025 장백산(화룡) 상황산업대회가 화룡시에서 개막되었다. 성당위 부서기 오해영,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중국공정원 원사 리옥이 개막식에서 연설했다. 개막식에서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중국군계학회 리사장 광광동, 국가식용균산업기술체계 수석과학자 황신양, 길림성 '길자호' 특색산업 고품질 발전 사업전담팀 팀장 진요휘, 길림농업대학 교장 리계운이 축사를 하고 화룡시당위 서기 왕계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화룡시 부시장 왕광위가 상황버섯산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광광동이 길림상황생물과학 기술집단유한회사에 '중국군계학회 과학보급사업기' 간판을 수여하고 길림성군계학회 리사장 리광진이 화룡시에 '길림성 상황버섯의 고향' 간

판을 수여했으며 화룡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박철만이 리옥에게 '화룡시 영예시민' 증서를 발급했다. 리옥은 길림상황생물과학기술집단유한회사에 식약용균 전문서적을 기증했다. '화룡 상황, 세계의 상황'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상황산업 발전 연구토론회, 장백산 상황산업 발전 전략포럼, 참관고찰 등 활동을 개최했다. 또한 국내외에서 온 300여명의 해당 전문가, 학자와 기업 책임자들이 이번 활동에서 상업 협력과 관련해 깊이있는 교류, 상담을 진행하고 기업, 학교, 연구기구간 융합을 한층 더 촉진하여 호혜, 협력, 상생을 힘써 도모했다. 최근년간 화룡시에서는 독특한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우세에 의탁해 상황산업을 중점 특색 우세 산업으로 틀어쥐고 본 지방 우량 균종인 '길항 1호'를 성공적으로 육성해 상황술, 상황

차, 상황동결건조편 등 일련의 심층기공 제품을 개발하고 '황지황', '립진원' 등 제품 브랜드를 구축했다. 또 선후로 중국특색농산물우세구역, 국가급 '춘마다 한개 브랜드' 특색향진, 상황 특색산업타운 등 칭호를 수여받았다. 현재 화룡시에는 2,000채의 상황하우스가 있는데 양식 면적이 130헥타르를 웃돌고 있으며 연간 상황 생산량은 150톤으로 전국 총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왕성한 산업 발전상황을 활황한 시장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성당위 부비서장 마연봉, 성농업농촌청 청장 류상의, 성공급판매협작사 리사회 주임 류고봉, 성중의약관리국 국장 장어위, 성과과학기술청 부청장 류보방, 성공업및정보화청 부청장 목가정, 성림업초원국 부 국장 리동우 등 500여명이 개막식에 참가했다. / 김영화기자

